

도·도교육청, 농촌유학 활성화 T/F 본격 가동

도·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참여 킥오프 회의... 2학기 서울학생 대상 농촌유학생 유치 시범운영·전국 성공모델 만들기 '총력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농촌유학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농촌유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협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도와 도 교육청, 시·군 사업부서 팀장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유학 TF 회의를 열고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 관련 사항과 기관별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도-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경전북도민회와 8월 말에 체결하는 농촌유학 협약에 관한 사항과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의 운주농촌유학센터 현장 방문 당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주, 진안,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 6개 초등학교가 참여할 2학기 농촌유학 시범사업과 관련, 준비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폐교부지를 활용한 전북형 농촌유학 복합센터 건립, △농촌유학 기간 3년 이상의 장기 운영, △도시 학생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정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김경수 기자



농촌유학 활성화 T/F Kick-off 회의

이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 교사 등이 진안군 조립초, 완주군 동상초등학교와 도내 농촌유학센터를 방문해 농촌유학 시범학교와 농촌유학센터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북도는 이날 T/F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농촌유학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TF 공동운영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와 도 교육청의 협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전북도 농촌유학이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과 농촌유학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의 아들 '조세혁 선수'

김관영 도지사, 임블던 테니스대회 우승한 조 선수 격려 "부상없이 도민들께 희망주는 선수로 성장해 달라" 당부

"부상 없이 세계 테니스계 제패해 도민들께 희망주는 선수로 성장해 달라"

김관영 도지사는 테니스 종목의 세계 최정상 대회인 임블던 테니스대회에서 14세부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 선수를 11일 도청으로 초청해 격려하면서 기쁨을 나눴다.

이날 격려에는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과 김우연 전북테니스협회장, 조세혁 선수의 아버지인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세혁 선수를 격려하며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전북도민의 기세를 올리는 계기를 만들어 준 조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조 선수를 월드스타로 키워낸 아버지 조성규 전북테니스협회 전무이사과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 김우연 전북테니스협회장께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조 선수는 부상 없이 세계 테니스계를 제패해 나가 도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지난 '11년



도부터 월드스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2년도에도 1억원을 투입해 8명의 선수에게 지원하고 있다.

조세혁 선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재학중이던 지난 '20년부터 우수선수로 발탁돼 월드스타로 육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블던 14세부 경기 첫 대회를 제패한 조세혁 선수는 지난 7월 임블던 우승의 여세를 몰아 국제 테니스연맹이 주최하는 2022 ITF 14세부 유령 투어 프랑스 대회까지 경쟁하면서 세계 최정상급의 독보적인 존재임을 입증했다.

조 선수는 내년부터 연간 6개월 이상을 외국에 머물며 각종 국제 대회 20개 이상 참가하면서 세계 주니어랭킹 150위 목표달성 후 4대 그랜드슬램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출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월드스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도, 청년 눈높이 맞는 일자리 발굴 위해 '머리 맞대'

도·청년허브센터, 청년정책포럼 등 20여명... 청년유입· 정착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논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청년 일자리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포럼과 청년허브센터 등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청년유입· 정착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논의하고, 곧 추진되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의 '23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이 도내 거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도에 바라는 청년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단순히 청년 일



청년일자리사업 추진방향 논의

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책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실무 체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인턴 사업'을 신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타 지역으로 떠났던 청년의 U턴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57개사업에 1,033억원을 투입하여 8,3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양한 청년 유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영세 지방세 체납자 경제적 회생 지원

체납자 소유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8월부터 11월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과 함께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시가표준액 100만 원이하 부동산과 차령이 15년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

지 않으면서 3년간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 기준을 정하고, 시·군은 대상자를 검토·선정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울

려 11월에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 해제 후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을 수시로 조사하며, 새로운 재산 취득 시에는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실익 없는 부동산·차량 정리로 소상공인 및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김경수 기자

'제2회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섬진흥원, 섬 발전을 위한 국내외 성공적 교류의 장 마련

제3회 섬의 날 행사 4일차인 1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한국섬진흥원, 전북도, 군산시, 한중일 관련학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시대,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2회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한국섬진흥원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오프라인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준비한 두 가지 주제인 '지방소멸시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전략'과 '섬(도서) 지역의 현황과 발전 정책'으로 각 국가별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돼 국가별 섬 관련 현안 공유 및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행사 5일차인 12일에는 섬 주민들이 주도하여 섬 발전에 기여한 사례들을 직접 발표하는 '섬 지역 주민 주도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섬 주민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는 '섬가왕대전' (울릉군, 강화군, 통영시, 군산시 등 4개지역 10명)이 기다리고 있다. /군산=김광민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대인적개발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범대 강사 · 송정교육사 · 심리상담사
- 게시 "665 스승의 날 케어원", "나쁜 배운, 배운"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지능력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